

광산구, 기업 성장 견인차 역할 '톡톡'

현장맞춤 컨설팅·역량강화 교육 신기술 특허·해외 수출 등 활발

광주 광산구가 현장맞춤 컨설팅·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우수·유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지역경제의 미래도 밝아지고 있다.

25일 광산구에 따르면 행정과 기업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주치의센터(이하 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상공인들이 해외 수출과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센터에서 추진한 혁신성장 컨설팅, 중·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역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이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광산형 우수기업'인 'G-SMART(지-스마트)' 기업의 성장세가 돋보인다.

국내 소득분위기 분야 선두기업으로 자리잡은 ㈜에스엠뿌리는 연 매출액이 2019년 23억 원에서 2021년 10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소득분위기 분야에서 다수의 국내·외 특허 기술을 획득하고 광주시 명품강소기업으로도 지정됐다.

또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지정돼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유망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현대솔라텍과 세계 최초로 에탄올·메탄올과 휘발유 혼합연료를 상용화하며 공공기관과 세계시장으로 무대를 넓히고 있는 ㈜동이기술 등도 대표적 '지-스마트' 기업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남부대 창업보육으로 출발해 공공기관, 지자체로 판로를 넓히고 있는 구명장비 제조업체 ㈜휴텍 산업 역시 촉망 받고 있는 '지-스마트' 기업 중 하나다.

이러한 지역 내 중·소기업 등의 성장 배경에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센터의 현장 컨설팅·제품 제작 지원 등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센터는 2019년부터 광산구의 대표기업 발굴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현장맞춤 집중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들이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에서 '기술혁신 명품컨설팅' 테마상담을 받고 있다.

공하고 있다.

지나해에도 현장 컨설팅 277건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역량강화 맞춤형교육, 매월 1회 경영, 기술, 금융 마케팅 등 주제별 테마상담 등을 활발히 진행했다.

특히 62억여 원에 달하는 정책연계 실적을 거두는 성과도 냈다.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인 ㈜유프랜드의 경우 센터의 정책연계 사업을 통해 광동신전주 부품 납품을 이뤄냈다.

센터와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은나노 항공 특허를 보유한 '폴린스'는 센터의 해외온라인판매 지원을 통해 미국 등 세계 각국에 수출길을 열었으며, 안전테이프커터기를 제조·판매하는 '포파스코리아'도 독보적 기술력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

사회적경제 기업, 여성·청년 기업의 활약도 주목된다. 사회적경제 기업인 부각 전문 '농부마을'(주)은 제품의 부피를 줄이는 획기적 아이디어와 '마라맛' 신제품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또 친환경 생활용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작(당

모의)'은 아이, 엄마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며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리뉴마켓'과 기능성 치약으로 창업한 '벨라이프' 등도 현장컨설팅, 해외온라인판매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성장의 결실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사례도 있다. LED 디스플레이 전문 제조업체인 ㈜스마트21은 광산구 '청년 미래 삶 일 경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고 있다.

광산구는 앞으로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산' 실현을 목표로 노사 상생 기반 조성, 일터 혁신 지원 등을 추진해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일자리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 중·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은 지역경제의 미래 희망이 되고 있다"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전체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작은 시작, 광산형 마을공동체 사업' 본격 추진 마을계획 연계 자율·자립성 강화...30일~2월3일 예비 접수

광주 광산구는 "작은 시작, 큰 공동체! 2023 광산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공모 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산구는 매년 마을공동체 주민공모 사업을 통해 주민이 마을의 체질을 발굴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지원방식을 마을공동체 성장단계별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는 주민자치 마을계획과 연계한 자율성과 자립성을 갖춘 마을공동체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한다.

특히 올해는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혁신과 상생(마을공동체 활성화)을 두 축으로 마을브랜드 개발, 이웃갈등 해소, 생활문제 해결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마을의 자연경관, 역사, 자원 등 마을 특성을 살린 광산구 대표마을을 만들기 위한 '대표마을 육성 지원사업', 주민 스스로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톡톡(talktalk) 소통 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했다.

지난해 2030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2030동네친구 만들기 반갑다 친구야!'도 이어간다.

광산구는 올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첫 시작으로 지난 20일부터 동별 주민자치회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모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다. 설명회는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희망 단체의 사전신청을 받아 27일까지 진행한다.

이어 30일부터 2월 3일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인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 예비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제출한 단체는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을 내실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종 사업계획서는 2월 20일부터 이틀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참여단체는 심사를 통해 3월 중 선정할 예정으로, 광산구는 향후 사업 추진 시에도 각 공동체에 마을활동지원가와 회계실무지원가를 연결해 공동체 활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촘촘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올해는 마을공동체와 동 주민자치회가 연계해 동 자치 네트워크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는 과정"이라며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구직단념·자립준비청년 지원 박차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선정...11억4500만 원 확보

광주 광산구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청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돕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1억 4500만 원을 확보하고, 청년 200명을 발굴해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높이는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참여수당 및 인

센티브(50만원)를 지급한다. 광산구는 사업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광산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국민취업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수의 사업수행 경험을 가진 ㈜내일엔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박병구 광산구청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당당히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사후관리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산구의회 국강현·이우형 의원, 광산시민연대 '의정대상' 수상

광주군공항 이전·군소읍 피해 보상 등 주민 권익 보호 평가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진보당)과 이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임한필)로부터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광산시민연대는 매년 '광산구의회 의정대상 선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등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의원 2명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국강현 의원은 지난 12년간 구의원으로서 지역 내 가장 큰 현안인 '광주군공항 이전'과 '군소읍 피해 보상문제' 등에 대해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의정활동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우형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흔적이 깃든 광산구를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공로 등을 인정 받았다.

국강현 의원은 "군공항 이전과 '소읍피해 보상'을 위해 펼친 노력에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의회 국강현(왼쪽) 의원과 이우형(오른쪽) 의원이 최근 광산시민연대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청년창업 샌드박스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광산구, 27일~2월10일 접수

광주 광산구는 "20~30대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샌드박스 지원사업'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 소재 창업 7년 이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다.

광산구는 올해 총 2개소를 선정하고, 1년간 사업 성장에 필요한 임차비, 재료, 물품비, 홍보, 개발비 자금으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사업 추진 중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사업 2년 차에 연간 24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27일부터 2월 10일까지며 광산구 지역경제활성센터(광산구 소촌로85번길 14-9)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gsb203@naver.com)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누리집(www.gwangsan.go.kr)이나 시민경제과(062-960-3922), 호남대 산학협력단(062-941-9522)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청년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